

광주시·27개 공공기관, 캐스퍼EV 판로 확대 힘 모은다

업무용 차량 우선구매 협약...배터리 장점·안전성 설명회도 상생형 일자리 구매보조금 전국 최대 지원...판매 촉진 도모

광주시와 산하 27개 공공기관들이 캐스퍼 전기차(EV) 판로 확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광주시는 28일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캐스퍼 홍보관에서 광주글로벌모터스(GGM)·산하 27개 공공기관과 '캐스퍼 전기차(EV) 우선 구매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제1호 상생일자리로 출발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캐스퍼 전기차(EV) 초기 판매를 촉진해 안정적 생산토대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 윤몽현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 송필용 현대차 광주전남본부장, 김성진 광주그린카진흥원장과 시 산하 공공기관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와 공공기관은 업무용 차량

구매 또는 임차 때 캐스퍼 전기차(EV)를 우선 구매하며, 캐스퍼 전기차(EV) 판매 촉진 방안 마련하고 홍보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무결점 캐스퍼 전기차(EV) 양산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협약에 앞서 강 시장과 공공기관장들은 광주글로벌모터스 생산공정을 살펴보고, 캐스퍼 전기차(EV)에 탑재된 배터리 특·장점 설명회에도 참석했다. 시 산하 공공기관장들은 이날 "캐스퍼 전기차(EV)가 전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명예 홍보요원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지난 7월 캐스퍼 전기차(EV) 양산에 돌입했으며, 올해 2만3000여대 생산을 목표로 유럽·일본 등 54개국에 수출 예정이다. 광주시는 판매 촉진을 위해 특·광역시 최고 수준인 최대 867만원을 상생형 일자리 구매보조금(정

부 지원금 520만원, 광주시 지원금 297만원, 취득세 감면 50만원) 등으로 지원한다. 강기정 시장은 "함께 힘을 모으려면 돌파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다"며 "캐스퍼 전기차(EV) 양산으로 제2 도약에 나선 광주글로벌모터스를 응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광주그린카진흥원 ▲광주도시공사 ▲광주교통공사 ▲광주관광공사 ▲광주환경공단 ▲광주사회서비스원 ▲광주테크노파크 ▲광주문화재단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신용보증재단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광주연구원 ▲광주디자인진흥원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글로벌광주방송(GGN)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한국화호남진흥원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주시체육회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재)광주비엔날레 ▲5·18기념재단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광주교통문화연구원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 ▲광주자원봉사센터 등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강기정 광주시장과 시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28일 오전 광주글로벌모터스(GGM)를 방문해 캐스퍼 전기차(EV)에 탑재되는 배터리 특·장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전남도 “‘그냥 쉬는’ 청년, 취업·사회활동 도와드려요”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경력재설계·취업역량 강화 등 지원

전남도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활동 지원과 구직 의욕 고취를 위한 '2024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청년들의 구직 단념을 예방하고 취직 초기 적응을 돕는 사업이다.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청년카페'와 지역기업 최고경영자(CEO)·인사관리자·신입사원에게 청년 친화 조직문화 교육을 하는 '직장 적응 지원'으로 구성됐다. 최근 청년들의 취업 준비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구직 과정에서의 취업 실패 경험 누적이 취업 포기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 고용동향 분석에 따

르면 전국적으로 그냥 쉬는 청년이 44만 명으로 역대 최대다. 그중 75%는 '일할 생각 없음'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남도는 거점센터(재)전남인력개발원과(사)일미래센터 등을 통해 청년의 경제활동 유인을 위한 선제적 지원과 노동시장에 원활히 진입하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등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적극 가동하고 있다. 청년카페는 청년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운영, 일상 및 구직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상은 15~39세 미취업 청년으로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1대 1 심리상담, 경력재설계, 청년네트워킹, 취업역량 강화 등이다. 직장적 지원은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

인 관리자(CEO·인사담당자 등) 및 채용 후 1년 이내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친화 조직문화 및 직장 적응지원 교육 사업이다. 협업 커뮤니케이션, 갑질예방, 온보딩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며, 수료 후 지속적인 네트워킹 형성 지원 및 멘토링 관리도 제공한다. 각 교육은 신청자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은 12월까지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희망자를 모집한다. 참여를 바라는 기업이나 개인은 고용24(www.work24.go.kr),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인민국장은 "지역과 청년의 동반 성장을 위해 청년의 구직 단념을 예방하고 지역 기업의 청년 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무등산수박·김치·전통주, 대구국제식품전 전시

달빛동맹관서 체험·시식행사 10월 광주식품대전서도 교류

무등산수박, 김치, 전통주 등 광주대표 농식품들이 대구에서 맛을 뽐내고 있다. 광주시는 28일부터 31일까지 대구 엑스코(EXSCO)에서 열리는 '제24회 대구국제식품산업전'에 무등산수박, 김치, 장류, 부각, 제빵, 차, 전통주, 가공식품 등 12개 지역업체가 참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2013년부터 11년째 두 도시에서 열리는 식품전에 '달빛동맹관'을 열고 식품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달빛동맹관'에서 광주와 대구 두

도시의 농식품 전시·홍보와 함께 무등산수박 포토존 운영, 대표음식 체험·시식행사 등을 마련했다. 10월 열리는 제31회 광주김치축제와 광주식품대전 홍보도 진행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달빛동맹관은 광주와 대구 대표 식품군을 한자리에 선보이는 교류의 장"이라며 "지역의 우수 농식품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 광주식품대전'은 '푸드테크 광주시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주제로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300개사 450부스 규모로 광주국제차문화전시회, 주류관광페스타와 동시 개최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성공 개최 '시동'

30일까지 경기장 현장실사 완료

전남도가 전국 2만여 생활체육인이 참가하는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준비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전남도와 전남도체육회가 주관하는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2025년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전남 일원에서 펼쳐진다. 2024년 대회 기준으로 12세 이하부, 15세 이하부, 18세 이하부, 대학부, 일반부 등 총 5개 종별에서 선수·임원 등 2만여 명이 참가한다. 17개 시도에서 모여든 선수는 그라운드 골프, 수영, 씨름 등

총 41개 종목에서 그동안 같고 닮은 실력을 겨룬다. 전남도는 지난해 전국(장애인)체전과 올해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대회도 세밀히 준비해 3개년 전국단위 종합 스포츠대회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할 계획이다. 대축전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개·폐회식은 생활체육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구성해 전남 생활체육 활성화의 모멘텀으로 삼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회가 진행될 경기장 배정과 개보수를 위한 현장실사를 오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

다. 성공 개최의 밑바탕인 경기장 시설물을 완벽히 준비해 선수단과 관람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경기를 즐기도록 한다는 목표다. 목포종합경기장, 전남도청 등에 대회를 맞춰 D-DAY 표시기를 설치해 도민 사전 홍보에도 나섰다. 향후 누리집 운영, 주요 역 전광판 홍보, 꽃탑 설치 등 단계별·맞춤형 홍보를 통해 대회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전남도는 안전, 관광·문화, 숙박·음식, 교통·주차, 의료·구급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사업계획 수립을 9월까지 마무리하고 대한체육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한우농가 융자금 상환 1년 유예

9월 5일까지 대상 확인서 발급 10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신청

전남도가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사육 농가를 위해 녹색축산육성기금으로 빌려준 융자금에 대한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키로 했다. 배합사료 가격과 농가재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가 올라간 반면, 산지 한우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면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융자받은 시설자금을 올해 11

월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 사이 상환해야 하는 79개 한우 농가가 대상이다. 이들 농가들은 33억원의 융자금 상환을 1년 간 유예받게 됐다. 희망 농가는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 축산부서에서 오는 9월 5일까지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대출받은 금융기관(NH농협은행 시·군지부)에 10월 31일까지 신청하고 대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축산 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